

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의 음성 특성에 관한 연구

가톨릭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황연신 · 선동일 · 심미란 · 송윤수 · 김상연 · 천병준

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의 음성 특성에 관한 연구

대표적 음성남용자 직업군인 목사 및 교사 등의 음성 문제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의 음성 문제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보고된 바가 없다. 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은 그들의 소임상 음성 남용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소리 내어 하는 기도(성무일도)를 매일 일괄적으로 하므로 음성 남용 직업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성대 양성종양을 지닌 여성 수도자가 본원 이비인후과에 상당수 내원하였지만 그 이외 후두에 특정 질환이 없이 음성변화나 후두 불편감을 호소하는 여성 수도자들도 많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원에 음성 문제로 방문한 여성 수도자 중 기질적 음성 문제를 지닌 환자 이외 후두에 특정 질환이 없어도 음성변화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를 포함하여 각각의 음성 특성들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치료 방법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원 이비인후과에 음성 문제를 주 호소로 방문한 여성 수도자 40명을 대상으로 후두내시경검사, 음성검사 및 공기역학적 검사, VHI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총 40명 대상자 중 22명

은 성대결절, 성대폴립, 성대부종과 같은 양성 종양 및 가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질환이 보였고 이들은 모두 교사, 상담, 강의 등 음성남용 직업군에 속하였다. 나머지 18명은 후두내시경 소견상 특이 LPR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발성시 성문틈 및 vc. tension 증가가 관찰되었고 음성검사 상 기식화된 발성 및 고음을 사용하는 특성을 보였다. 공기역학적 검사상 평균 호기율 및 최장연장발성시간이 비교군인 동일 연령 일반여성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VHI 설문지 검사는 비교군과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여성 수도자들은 모두 음성남용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들의 음성 남용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가시적 음성남용자(교사, 상담자 등)는 기존의 음성치료 방법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치료 방법이라 여겨지며 비가시적 음성남용자(기도 및 묵상생활)는 평소 습관적으로 약하고 고음의 발성을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관찰하여 발화 습관 교정 및 복식 호흡 교육 및 유산소 운동과 같은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